

주일 예배 순서

- 부활 후 제 4주 -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편 146:1-2 다함께
- 찬 송(Opening Hymn) 16장 다함께
- 교독문(Responsive Reading) 48번 다함께
-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하여 감사 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항상 잊지 않도록 성령의 임재로 함께 하옵소서. 그래서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항상 주님께서 받으실만한 거룩한 행실로 드러지길 원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성령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증거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기도로 늘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순종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저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저희 안에 계심을 분명히 알아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 성경봉독(Scripture) 창세기 45:4-8 인도자
-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 봉 헌(offering) 5장 다함께
-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 찬 송(Hymn & offering) 383장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성도 간의 기도와 교제(전화, 카톡)를 통해 보이지 않는 믿음의 끈이 연결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도의 교제
 - 박현숙 성도님께서 성도님들께 사랑의 안부를 전하셨습니다.
 - 김희상 권사님께서 검사를 위해 아틀랜타로 출타하십니다.

〈기도제목〉

- 코로나 백신을 통한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 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선교사님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 미국에 회개와 부흥을 통한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 사회 전 분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씀묵상〉 창세기 45:4-8

4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5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6 이 땅에 이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찌라 7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8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1. 요셉이 자신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판 형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를 합니까 (4, 5절)? 만일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 요셉은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인생 여정에 대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게 된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우리는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 상황과 환경 자체에 사로잡혀 마음이 요동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원인을 생각해보고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을 때, 마음은 더 힘들어 집니다. 요셉은 자신이 처한 억울한 환경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맡은 일들이 다 형통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난은 쉽게 끝나지 않았고 청년의 시절을 노예와 죄수의 신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예측을 뛰어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우리의 마음이 원망과 불평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면 때가 될 때 하나님의 섭리가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써시다.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